

동강대, 육군 부사관학군단 창설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제305 학생군사교육단)을 창설했다.

동강대 학생군사교육단(단장 채희봉)은 지난 22일 동강대 나이팅게일홀에서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식에는 이민숙 총장과 정정숙 육군부사관학교장, 교수부장, 육군 주임원사, 인접부대 주임원사 등이 참석해 RNTC 출발을 축하했다.

창설식은 예비역 교관(예비역 원사 강건익)의 창설 경과보고, 부대신고, 부대기수여, 정정숙 육군부사관학교장 축사, 이민숙 총장 기념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학군단 현판식도 이어졌다.

동강대는 지난해 국방부 정책사업인 육군 RNTC를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했다.

RNTC는 설치대학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을 1학년 1학기 때 선발, 3학기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교내교육 및 입영훈



동강대 학생군사교육단(단장 채희봉)이 지난 22일 동강대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민숙 총장과 정정숙 육군부사관학교장, 교수부장, 육군 주임원사 등이 학생군사교육단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련 과정을 거쳐 대학 졸업 후 임관시킨다.

정정숙 육군부사관학교장은 축사를 통해 "RNTC는 정예 부사관을 배출하며 국가 안보와 육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육군본부 전국 최우수 군사학과로 평가받는 등 우수국방인력 양성에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강대가 새로운

육군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 창설식을 통해 군과 대학의 전통을 세우고 핵심 인재가 될 동강대학교 후보생들의 첫 발걸음을 축하한다"며 "후보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과 대학의 자광으로 성장할수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동강대는 21개 학과의 우수한 인재들이 부사관 후보생(RN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무안 오룡2지구 초등학교 1개교 신설

전남교육청이 무안 오룡2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열린 '2022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이 요청한 오룡2지구 내 (가칭)사랑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4월 '정기2차 심사'에서 오룡2지구 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승인을 받아 오는 2025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무안 오룡2지구 내 공동주택 6138가구 건립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총 6개교(유치원 2,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통해 인근 학교 과대·과밀 해소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칭)사랑초등학교는 1만5000㎡ 부지에 총사업비 391억원을 들여 37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무안 오룡지구 숙원 사업인 (가칭)오룡고등학교와 광양 황금지구에 초·중 통합영양학교 설립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조성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 신설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10월 심사에서 지역사회의 염원인 오룡지구 고교 신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인 원폭 피해 알리고 반핵평화의 길 모색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원폭의 기억과 증언' 특별행사

한국인 원폭 피해의 진실을 알리고 반핵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이 25일 조선대 본관 4층 사업단 세미나실과 전시실에서 '원폭의 기억과 증언-반핵 평화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한 특별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원폭 피해 재난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궁극적으로는 반핵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매년 8월 6일이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함천에서 원폭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고 있어 이를 위한 일종의 전야제인 셈이다.

이번 행사는 '원폭 피해 관련 자료 및 전시 행사'와 '기념학술행사'로 치러졌다.

전시는 함천원폭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재난인문학사업단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꾸러졌다. 함천원폭자료관은 원자폭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실상을 알리는 한편, 핵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건립된 기관이다.

이번 전시는 원자폭탄 투하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기념학술행사'는 원폭 투하의 순간을 기록한 영

상 나누기 행사에 이은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의 주제 강연, 광주 지역 원폭 피해자 1세의 증언, 김경인 전남대 학술연구교수의 연구 발표 외에 광주시낭송협회원들의 원폭시낭송과 더드림 가족음악대의 현악 연주 등의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강희숙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까맣게 잊혀진 채 방치되었던 한국인 원폭 피해의 진실을 알리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면서 "비극적인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는 한편으로 핵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반핵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를,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팻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당시 두 도시에서 원폭에 희생된 사람은 약 7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5%에 해당하는 10만여명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였다.

원폭 후유증은 피폭 1세에 그치지 않고 2세 3세 등 후손에게도 유전돼 고통이 대물림되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 이후 77년째를 맞은 오는 8월 6일에는 함천에서는 원폭 희생자의 영혼을 기리는 '제77 주기 위령제'가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보급 교육용 AI 로봇.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교육용 AI로봇 보급 추진

전남교육청이 도 교육청 본청과 AI 중심고등학교(4개교), SW체험센터(5개센터)에 교육용 AI 로봇을 보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한전KPS(주)와 맺은 디지털 인재양성 및 스마트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교육용AI 로봇 1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교육용 AI 로봇 보급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본청의 경우 교육용 AI로봇을 민원인 안내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남교육 홍보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AI 중심고등학교는 로봇, 자율주행 동아리 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 교육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 SW체험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음성대화, 영어교육, 자료검색 등 미래 로봇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 통해 미래사회 디지털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교실 수업 개선, 질문·탄성·웃음이 있는 수업자원을 이룸으로써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전남형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호남대-완도군 공동연구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연구팀이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정은성 교수, 경영학부 이선화 교수는 전남대 지리학과 이태수 교수 연구팀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해 완도군의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연구팀은 완도군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해안 경관루트, 치유의 섬, 해양생태 돌레길, 해양레저 문화거점 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정은성 교수는 "문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서 완도군의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스마트관광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스마트형 해양생태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완도군이 남서권 해양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자인 이선화 교수는 "이번 연구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계약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